

# 장성군, 2025 전남체전 개최 대비 체육시설 손 본다

9개소 내년 초까지 대대적인 정비  
위라벨돔구장 하드코트 교체 완료  
상무축구장 인조잔디 보완 마무리  
학교 체육 조명시설 개선 정비 등

2025년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인 장성군이 대회 준비를 위해 대대적인 체육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국·도·군비 총 26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9개 체육시설을 정비 중이다.

대상시설은 △위라벨돔경기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장성실내수영장 △궁도장 백학정 △삼계테니스장 △장성호조정경기장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홍길동체육관이다.

장성군은 앞서 종목별 경기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국

·도비 14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군비 12억 원을 추가해 지난 3월부터 체육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라벨돔구장 하드코트 설치작업을 마쳤고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관리실 설치하는 마무리 단계다. 내년 초까지 나머지 시설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학교 체육시설도 일부 정비한다. 군은 장성교육지원청, 장성중학교와 협의를 통해 조명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체전 개최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이 해당 사업비 7000만원 전액을 내년 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하드코트 교체로 새단장을 마친 위라벨돔구장이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나머지 체육시설도 차질 없이 정비해 양대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민 체육시설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인 장성군이 대회 준비를 위해 체육시설을 개선한다. 장성군 제공

한편 장성군은 지난 10월 황룡강 가을 꽃축제 기간 ‘전남체전 성공기원음악회’를 열어 양대체전 개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바 있다. 종목별 프레(pre)대회 개최를 통해 대회 준비사항도 세부적으로 점검 중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 엄홍길 초청 아카데미 강연회 함평군, 13일 엑스포공원서

함평군이 오는 13일 오후 3시, 함평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산악인 엄홍길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불굴의 도전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군민들에게 강연을 통해 도전과 극복의 중요성을 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엄홍길 산악인은 히말라야 로체샤르(해발 8400m) 16좌 세계 최초 등정과 네팔 히말라야 주갈 1봉(6591m)을 세계 최초로 등정한 인물로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산악연맹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산에서 겪은 생사갈림길의 경험과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엄홍길 산악인은 직접 경험한 등반 이야기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가 체험한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넘어서며 얻은 깨달음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관점과 용기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함평아카데미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함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엄홍길 산악인의 강연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이 참석해 그의 강인한 도전정신을 배우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영광군, 11일부터

영광군은 6일 영광읍 백학리 일원에 조성된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차고지 운영 사항과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면적 4만9760㎡ 규모로 특대형 9면, 대형 118면, 소형 140면 등 267면을 비롯해 관리동에는 관리실, 수면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영차고지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에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군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 운송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영차고지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대상 모집 화순군, 18일부터 21일까지 접수

화순군은 6일 전통공예품 계승 및 발전과 전통공예품 상품화, 다양화, 고급화 유도를 위해 ‘2024년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통공예품 생산을 업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가 2023년 12월 1일 기준 화순 관내에 있는 자이다.

대상자는 주로 ‘행사 또는 전시회 참가 실적’, ‘대회 수상실적’, ‘공예품 종사자 이력’, ‘공예품 상품화·고급화 유도’ 등 총 4개 분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 평가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이며 지원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구비 후 화순군청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감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위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공예품 제작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기를 높임으로써 관내 공예산업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함평군, 8일부터 27일까지

함평군이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내년 실시될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 및 표본 추출 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대상은 건축연도 5년부터 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빈집 포함 모든 거처와 가구로 함평군 내 약 1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가구 면접조사도 병행하며 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집단시설 종류, 주거시설 형태 등 총 14개이다.

이번 가구주택 기초조사의 결과는 통계청의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통계상황실(061-320-1555-7)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난 3일 곡성군 석곡도시재생 마을축제 운동회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해 박 터트리기를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 곡성군 석곡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마을 축제

곡성군 석곡면에서 열린 ‘제3회 석곡 도시재생 마을축제’가 지난 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석곡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청년회, 상인회, 석곡 돌실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석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그때 그 시절 Reborn 1973’을 주제로 추억 속의 운동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고 그때 그 시절(1973년)로 돌아가 추억 속의 운동경기, 뽑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추억의 도시락 등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다.

큰 공굴리기는 주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요 내빈과 행사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큰 웃음을 안겨주었으며 경기 후 모든

참여자가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석곡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계자는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화순군, 난 명품 박람회 개최한다

9~10일 하니움센터서

화순군은 ‘제5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를 오는 9~10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난보존협회와 화순난연합회 등 5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자생 난 정보공유의 장으로 한국란 1000여 개 분(중투·산반 등)의 다양한 출품작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난 전시 △난 세미나 및 클리닉 △난 판매전 △난 경매 등 난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어느 전시회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순군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화순 농특산물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람회 출품작은 8일 접수받아 자체 심사를 거치며 선정된 우수 작품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진행으로 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5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는 한국출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 관련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난 산업과 저변확대 및 지역민 난 재배 관심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군수는 “오랜 노력과 정성으로 키운 난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가 한국 난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난 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많은 분이 방문해 난의 매력에 심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